

# #AI 도입 #금융권채용 주춤 #청·장년 고용률 격차 ↑

## 키워드로 보는 상반기 취업 트렌드

고용률 50대 75.7%·20대 28% 서류검토서 시가 표절여부 확인 '채용비리' 금융권, 가이드라인 도입해 하반기 채용에 적용

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은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대와 50대 고용률에 15%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일부 대기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구인에 활용하는 반면, '채용비리'로 주춤했던 금융권은 하반기 고용을 늘릴 전망이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18일 '상반기 취업시장 트렌드 결산'을 내고, 금융권이 채용비리 대책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반기 채용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대형 시중은행과 주요 지방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 영향으로 상반기 채용이 다소 주춤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달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모범규준 초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올해 상반기 '채용비리'로 멈춰있던 금융권 취업시장이 하반기부터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대기업이 서류전형에 도입한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전망이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10.5%를 기록한 가운데, 20대와 50대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17.7%포인트를 보여 어두운 취업 현실을 보였다. /유투이미지

기시험 도입과 함께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사람인은 규준안이 가이드 라인 성격이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확정된 기준을 내규에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말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다. 다른 시중 대형 은행도 하반기

에 채용을 보다 늘릴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기업들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AI의 역할은 서류 검토에 집중돼 있다. 서류검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AI 도입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상반기 채용에서부터 백화점, 정보통신 등 일부 계열사에서 지원자

가 서류를 제출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인재 부합도, 직무 적합도, 표절 여부 등을 가린다.

SK C&C는 AI플랫폼 '에이브릴'을 이번 상반기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서류평가에 시범 도입했다.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기본 질문과 탐색질문, 직군별 심층 구조화 질문 등을 인공지능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다만 활용 초기 단계이므로 AI전형 분석결과는 면접관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방침이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5월 10.5%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50대 이상과 20대의 고용률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 고용률 격차는 지난 5월 20대 58%와 50대 75.7%로 17.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세대별 인구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고용 격차는 당분간 좁혀

지지 않을 전망이다.

상반기는 공공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입사원 680명을 채용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 최다 인원을 임용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에는 유사 분야의 '합동채용'이 늘었다. 응시경쟁률을 낮추고 중복합격에 따른 결원발생을 최소화해 취업 인원을 늘리고, 채용기관의 비용 절감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3월에 공공기관 67곳이 합동채용에 참여했다. 하지만 전체 응시 기회가 줄어 취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실력'보다는 '눈치싸움'이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청년 고용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도 쏟아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정규직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인이 구직자 464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3%가 '아직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범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학생들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선거 좌담회에서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준생 "첫 월급 223만원 받았으면..."

예상 월급여액은 198만2000원

구직자들의 첫 희망 월급과 예상 월급은 각각 223만4000원과 19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남성 첫 희망급여가 평균 240만7000원, 여성은 20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학력이 낮을수록 희망급여액도 낮아져 ▲고졸 취준생의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06만2000원 ▲2~3년제 대졸 206만8000원 ▲4년제 대졸 238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월 급여액은 목표 기업유형에 따라 서로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준생의 희망급여는 평균 200만8000원으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공기업 목표 취준생은 평균 229만1000원 ▲외국계 기업은 230만5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은 250만6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목표 그룹간 희망 월급여 격차는 약 50만원에 달했다.

취준생이 예상하는 실제 급여액은 희

망 급여액보다 25만2000원 낮은 19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월급여는 ▲대학원졸업자 242만4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 224만원, ▲남성 212만9000원 순이었다.

반면 예상 월급여가 가장 낮았던 그룹은 ▲중소기업 목표 취준생으로 179만4000원 ▲고졸자(180만4000원) ▲2~3년제 대졸자(184만7000원) ▲여성(185만1000원) 등으로 19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취준생 2명 중 1명이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부모님에 대한 보답을 꼽았다.

응답자의 49.1%가 '첫 월급 로망'에 대해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라고 답했다. 이는 모든 성별, 학력, 목표기업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응답군에서 1위였다.

2위는 '적금통장 개설(14.8%)'이 차지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등 빚 갚기(7.3%)' '고생한 나를 위한 소품(6.0%)' '가족들과의 외식(6.0%)'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눈치 안보고 돈 써보기, 탕진잼(5.2%)' '친구·지인에게 월급 털기(4.7%)' '재테크(2.0%)' '월급 인증샷(1.2%)' '뮤지컬 등 문화생활(1.2%)' 등을 첫 월급 사용처로 꼽았다. /이범종 기자

## 입사 포기하게 만드는 질문 '호구조사·성차별'

잡코리아 취업준비생 1119명 설문 10명 중 7명 "불량질문 회사 포기"

구직자 10명 중 7명이 면접 후 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회사 취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사이트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올해 면접 경험 있는 취업준비생 1119명에게 설문한 결과, 입사포기를 부르는 면접 질문으로 '성차별적 발언(여성 1위)'과 '호구조사(남성 1위)'를 꼽았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에서 취준생들은 '입사를 포기하게 하는 면접 질문이 있다(97.9%)'고 밝혔다.

입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면접 질문은

남성의 경우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와 같이 ▲지원자 본인이 아닌 주변을 확인하는 질문(40.6%) ▲뭘 확인하려는 지 알 수 없는 압박을 위한 압박질문(37.5%) ▲원하지 않은 인생 훈수를 두는 질문(33.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여자치고는~'처럼 ▲성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질문·발언(65.8%) ▲지원자 본인이 아닌 주변을 확인하는 질문(50.1%) ▲업무능력과 관계 없는 개인 신변잡기를 묻는 질문(37.0%)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사포기를 부르는 면접 질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무렇게도 확인하는 질문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발언 ▲사전테스트·포트폴리오를 가장한 아이디어 제공 요구 ▲뼈

딱하게 느껴지는 질문 ▲종교·정치색 등 신념을 묻는 질문 등이 있었다.

취준생 68.4%는 설문에서 '면접을 보고 난 뒤 면접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 회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남성(62.9%)보다는 여성(70.9%)에게서 높았다.

반면 취준생의 20.7%는 '입사 포기 결정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후회한 순간으로는 '계속 채용공고를 뒤지며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27.8%)' '내가 판단한 것보다 회사가 괜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22.8%)' '기다렸던 기업에서 입사제외가 오지 않을 때(19.6%)' 순이었다.

/이범종 기자

## 직무중심 채용 사례 공유 '잡코리아 HR포럼' 개최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2018 제5회 잡코리아 HR포럼'을 21일 잡코리아 본사에서 개최한다.

잡코리아 HR포럼은 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5월 시작했다.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각 1회씩 진행되고 있다.

5회차를 맞는 이번 포럼은 '직무 중심의 채용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삼양홀딩스, 후지제록스, LG전자 인사·채용담당자가 연사로 나서 각 기업의 생생한 직무중심 채용프로세스 사례를 공유한다.

윤병준 잡코리아 대표는 "국내 우수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 서울대 총장 38년 만에 '의대 교수'

의과대학 강대희 교수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제27대 총장 최종후보로 강대희(55·사진) 의과대학 교수를 18일 선출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이날 오전 호암교회 회관에서 신입 총장 선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 뒤 투표를 통해 강 교수를 최종후보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로부터 추천받은 강 교수, 이건우(62)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우일(63)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평가한 뒤 최종후보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했다. 결선투표에서 강 교수는 재적이사 15명의 과반인 8표를, 이건우 교수는 7표를 얻었다.

앞서 총추위와 정책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한 결과는 강대희 교수 1위, 이건우



교수 2위, 이우일 교수 3위였다.

강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 1994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 연구부처장,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 서울대 의과대학장 등 학내 여러 보직을 맡았다. 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교수는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 양성 ▲혁신적 연구 지원 시스템 ▲다양성 존중 ▲실질적 복지 확충 ▲1조2천억원 재정 확충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용수 기자 hys@